

KOIMA, 희귀금속 확보 사절단 파견

한국수입업협회(KOIMA)는 10월3일부터 11일간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자원확보를 위한 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고 10월2일 발표했다.

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달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절단 파견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원자재 거래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사절단은 방문국 정부 관계자 및 무역유관기관, 기업인들과 공식회의 및 수입상담회를 개최해 3개국이 보유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협회 관계자는 “방문하는 3개국은 니켈, 크롬, 망간, 코발트, 바나듐 등 국내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귀금속들이 매장돼 있어 큰 기대가 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7/10/02>